



# 이 세상의 남자들이 싫어요

옥복연/성상담, 성교육전문가

전 고3 여학생인데, 작년부터 사귀던 오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쫓아다니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달 여름방학때 거의 매일 오빠의 집에 가게 되었고, 성관계도 갖게 되면서 설마했던 임신도 했습니다. 낙태 수술을 받으면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으니까요. 오빠랑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또 절 지켜 준다고 굳게 약속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가 나 몰래 다른 여자를 사귀는 것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전 오빠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차 헤어지자고 했더니 절 미친듯이 때렸습니다. 정말 무섭고 회의를 느껴져서, 절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오빠가 싫었습니다. 절 단순히 성을 충족시켜주는 상대로 사귀었는지, 정말로 사랑했는지.. 이제는 친구들도 싫고 이 세상의 남자들도 싫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믿으며,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이 전제되어야 하지요.

준비없는 성관계로 인한 인공임신 중절 수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며, 이는 평생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했다는 것은 자신을 확대한 것이며,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학생은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이고, 사랑한다는 핑계로 일방적으로 준비없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또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지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상처 받을까봐 아껴주고 보호하면서 함께 미래를 준비하면서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지요?

OO님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너무나도 커다란 대가를 치렀으므로, 이제 더 이상은 자신을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더욱 성숙한 자신과 알찬 미래가 약속되지만,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한 발짝의 진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연속이 되겠지요.

자? 이제 선택은 OO님의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시간과 기회가 OO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보세요.

**오** 랫동안 좋아했던 오빠와 사귀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은 여학생이군요.

— 혼자 좋아하던 오빠가 마음을 받아 주었을 때는 자신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기쁨으로 마치 온 세상을 얻는 것처럼 뿌듯해 지기도 하지만,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아 헤어질 때는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속에서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누구나 사랑이 떠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견디기 어려운 쓰라린 상처를 받으며, 때로는 영원히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